

성년기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in Young Adult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분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곽경화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 Chung, Ock Boon
Schoo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Duksung Women Univ.
Lecturer : Kwag, Kyung Hw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to gender and sex role identity in young adul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2 males and 46 females, the age of 30 to 39 years old. Care-oriented morality was assessed by the Ethic of Care Interview(ECI)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was assessed by the Korean Defining Issues Test(DIT) while sex role identity was assessed by the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Care-oriented morality of most of the subjects was on level 2. The P(%) score of justice-oriented morality of most of the subjects was found to be pretty high. Sex differences were found both in the levels of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That is, women were higher than men both in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role identity types was found both in the levels of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주제어(Key Words):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care-oriented morality), 정의 지향의 도덕성(justice-oriented morality), 성역할 정체감(sex role identity)

* 본 논문은 2000년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I.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왜곡된 개인주의 및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부정 부패의 만연 등으로 인하여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 현상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보다 새로운 윤리적 가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도덕성 발달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 지향의 도덕성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두 영역의 도덕성은 이론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성 발달을 위한 덕목이기 때문에, 정의와 보살핌의 윤리에 관한 논의는 통합적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Skoe & Gooden, 1993). 게다가 이같은 관점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이다. 이는 서구적 요인과 한국적 요인이 충돌하면서 전통의 힘이 약화된 자리에 이를 대신할 만한 규범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평등이나 자유를 추구하는 서구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사회를 구성하였으나 사회를 움직이는 구성원의 의식은 협력이나 희생과 같은 덕목을 중시하는 한국적 정서에 의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동원, 1992).

Kohlberg는 도덕적 행위란 도덕적 판단능력을 의미하며, 도덕적인 판단의 원리를 정의(justice)로서 간주하였다. 여기에서 정의란 보편적인 원리로서, 도덕적 관점을 구성해 나가는 기준을 의미한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며, 우선적으로 개인의 권리나 평등·공정성·의무 등을 강조한다(이미식, 2000). 반면, 남성 중심적인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대신하여, Gilligan은 여성의 도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써 보살핌(care)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살핌의 관점에서는 상호의존적 인간관계 및 책임감과

의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랑 등의 특성을 중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박병춘, 1995).

보살핌의 윤리는 합리주의적 관점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조리 현상, 즉 지나친 경쟁 의식이나 개인간의 단절 및 개인소외 현상, 상호존중의 부재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박병춘, 1999; 이미식, 2000).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즉, 우리 사회 전반에 잠재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은 자아와 타인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보살핌의 윤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살핌의 윤리와 새로운 유교적 가치관을 서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열띤 쟁점 중의 하나는 도덕성 발달에서의 성차였다(Gilligan, 1982; Walker, 1984). 이에 많은 연구들이 도덕성 발달에 관한 성차를 연구하였으나, 그 결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Lyons, 1983; 광경화와 정옥분, 2000)은 도덕적 추론에 있어서 성차를 입증한 반면, 다른 연구들(Ford & Lowery, 1986; Walker, 1989)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더군다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Schling, Skoe, 그리고 Marcia(1994)는 성별보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간에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 집단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성차에 대하여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성차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나 Gilligan의 이론을 근거로 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국한

되었으며(김보들맘, 1993; 김영미, 1996),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부모의 성격이나 양육태도 및 가정환경과의 관계(김영미, 1996)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전창동, 1996)들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물론, 국내에서도 Gilligan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보살핌의 윤리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거나(박병춘, 1995), 성별에 따른 도덕적 지향성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이나현, 1997)가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정의 지향의 도덕성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박병춘, 1999; 이미식, 2000), 아직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 발달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및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이해하고, 도덕성 발달상에 성차가 있는지 아니면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 및 사고 방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및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도덕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30대 성인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우리나라 30대 성인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우리나라 30대 성인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30대 성인 남녀 88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표집 방법은 개인적인 사항들을 심도있게 질문하고 개별면접을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선·후배와 친지들을 통해 아는 사람들을 소개받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97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면접을 시도하였으나, 이 중에서 93명의 질문지를 회수하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 중에서 녹음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완성인 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88명의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남성은 42명(47.7%)이고, 여성은 46명(52.3%)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88)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2	47.7
	여	46	52.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	16	18.2
	전문대 졸	12	13.6
	대학교 졸	38	43.2
	대학원 졸	22	25.0
직업	무직 및 기타	8	9.1
	생산기능직	4	4.5
	판매직	2	2.3
	사무직	26	29.5
	행정관리직	2	2.3
	전문기술직	46	52.3
종교	기독교	30	34.1
	불교	14	15.9
	천주교	10	11.4
	무교	34	38.6
결혼 여부	미혼	32	36.4
	기혼	56	63.6

2. 측정도구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koe (1987)가 제작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ECI: Ethic of Care Interview)」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성인용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는 반구조화된 면접 형식으로, 책임이나 보살핌에 관한 네 개의 도덕적 갈등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연구대상자가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을 질문하였으며, 나머지는 ① 혼외 임신에 따른 임신 중절의 문제, ②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결혼 생활과 이혼의 문제, ③ 부모 부양에 관한 효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우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나서 가상적 갈등상황들을 제시한 후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왜 그런지를 질문하였다. 여기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보다는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간의 상호의존성이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자기 중심적 단계(제 1 수준)에서 타인 중심적 단계(제 2 수준)를 거쳐,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단계(제 3 수준)로 발달한다. 이 때 제 1 수준과 제 2 수준 사이에는 제 15 수준이, 제 2 수준과 제 3 수준 사이에는 제 25 수준의 과도기가 존재한다.

Skoe(1987)가 각 수준별 특성을 보고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갈등상황마다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를 결정하고, 도덕 수준들의 총합과 평균을 산출하였다. 즉,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은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들의 평균을,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는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성인용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는 아동학 전공

교수 3인과 3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에 의하여 그 내용을 검토받았다. 그리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분석한 후,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과 연구보조원의 평정자간 일치도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Skoe와 Marcia(1991)가 보고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93%~95%였고,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86~.94였다. 본 연구에서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73%~95%였고,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75~.92였다.

2) 정의 지향의 도덕성

Rest(1979)의 「주제정의검사(DIT : Defining Issues Test)」는 Kohlberg의 주관식 개인면담 방법을 객관식 표준화로 변형·제작하여 도덕 판단능력 검사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용린(1986)이 제작한 「도덕 판단력 검사(한국형 DIT)」를 사용하였다. 도덕 판단력 검사는 원래의 갈등상황 중에서 '남편의 고민', '탈옥수', '의사와 환자'를 번역한 간편형에 해당한다. 이는 세 가지의 갈등상황과 각 갈등상황마다 12문항씩, 총 36개의 질문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각 12문항씩 총 36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평정이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의 하나를 나타내며, 각 개인 점수는 P(%)점수로 나타낸다. P(%)점수는 각 갈등상황의 12문항 중에서 피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여 추출한 네 문항의 순위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이다. 즉, 각 문항에 해당하는 단계별(2, 3, 4, 5A, 5B, 6) 점수를 합하여 단계별 점수를 구하며, 이 단계별 점수 중 5A, 5B, 6단계의 점수를 합산하여 P점수를 구하게 된다. 이 때 P점수를 3으로 나누면 P(%)점수가 산출되는 것이다. 이는 피험자의 도덕판단 중에서 후인습적 수준인 5, 6단계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므로, P(%)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의 도덕판단 수준이 높은 단계임을 알 수 있다.

3)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진경(1990)

이 개발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 : 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밝혀내어 이를 기초로 제작한 검사로서, 남성성 척도 20문항, 여성성 척도 20문항, 그리고 긍정성 척도 20문항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성 문항은 여성에게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고, 여성성 문항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다. 중성적이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긍정성 문항은 어느 한 성에게 바람직한 특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이다. 여기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는 논리적으로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계산 과정에서도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방법으로는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각 연구대상자의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의 점수를 산출한 후, 각각의 중앙치를 구하였다.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적 정체감,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으면 남성적 정체감, 여성성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으면 여성적 정체감,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정진경(1990)이 보고한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각 하위 영역별로 Cronbach's $\alpha = .75 \sim .91$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sim .89$ 였다.

3. 연구절차

우선, 본 연구자들이 수정·제작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교수 3인과 3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의뢰하여 질문 내용을 검토받았다. 예비조사는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1월 1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미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검사 도구를 가지고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하

는 데 무리가 없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2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특히,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면접자와 연구대상자간의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면접은 연구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되었다. 면접자가 측정도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후, 성역할 정체감 및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대한 문항을 측정하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어떠한 강요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보충 질문들을 통하여 갈등상황과 판단 근거에 관한 심도있는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면접자가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를 실시하며 소요된 시간은 개인당 15~30분 정도였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녹음한 내용을 기록에 옮기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명의 평정자가 각 반응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평정자간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하여 합의 과정을 거쳤다.

4.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에 의하여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ohen's kappa를, 성역할 정체감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실시하였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모든 검사의 유의수준은 .05로 정했다. 이상의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7.5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우리나라 30대 성인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각 수준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제 2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제 15 수준, 제 25 수준, 제 1 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제 15 수준이 2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제 2 수준(2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제 2 수준이 2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제 15 수준(12.5%), 제 25 수준(11.4%)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수준에 분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각 단계별 특성들과 실제로 면접한 사례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 1 수준 : 자기 중심적 단계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특징이다. 도덕적 갈등은 자기 자신의 욕구간에 어떤 욕구를 먼저 충족할 것인가를 놓고 이루어진다.

<표 2>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빈도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	성 별		전 체
	남	여	
제 1 수준	0(0.0)	1(1.1)	1(1.1)
제 15 수준	22(25.0)	11(12.5)	33(37.5)
제 2 수준	20(22.7)	24(27.3)	44(50.0)
제 25 수준	0(0.0)	10(11.4)	10(11.4)
제 3 수준	0(0.0)	0(0.0)	0(0.0)
전 체	42(47.7)	46(52.3)	88(100.0)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둔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처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놀러오셨다. 그런데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나갈 준비를 하던 참이라 당황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께 다음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태어날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자기 중심으로 사고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혜수 자신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관계에서 생긴 아이는 낙태해야 한다. 이 일로 그 동안 이루어 온 것을 망칠 수 있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여 배우자에 대한 의무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도 무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희수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결혼한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지금의 생활이 불행하다면 굳이 계속 영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

스스로의 행복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같이 살아온 것도 아니고, 서로 뜻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같이 살 수는 없다고 본다.

(2) 제 15 수준 :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의 변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나 연계성이 서서히 나타나며, 이기심과 책임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즉,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타인을 배려하는 책임감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

라도,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충족하고자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 상사가 갑자기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당장 내일까지 자료를 정리하라고 했다. 어떡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약속이 있어 내일까지는 힘들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회사일이래도 이렇게 갑자기 일을 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그 대신 좀 더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정도면 편의를 봐준 거라고 본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아이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으나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자기 중심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수는 그 여자와 헤어지고, 아이는 지우도록 한다. 민수가 키울 수도 없고, 애인이 키울 수도 없을까니 지우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애인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배우자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결혼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은 정말 밍지만 자너는 무슨 죄인가! 적당하게 즐길 수 있으면 된다. 남편과 불행하다면, 승훈과 잘 지내는 것도 좋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

잠시동안 부모님을 모시려고 시도하나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떨어져 다르게 살던 세대가 합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로 살면서 부모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

(3) 제 2 수준 : 책임감과 자기 희생의 단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모성애적인 책임감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것을 중시한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

자기 자신의 관점이나 감정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도와주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아이를 임신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매우 좋아하였다. 우연히 정기검진을 하면서 아이의 뇌에 물이 차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정신 지체를 앓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낙태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정신지체가 될지 아닐지, 그렇다면 그 정도가 심할지 아닐지는 출산해서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남편과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아이를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소중한 생명을 임의로 없앨 수는 없었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실수로 인한 임신일지라도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여성을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은 물론이거니와 원할 경우 아이도 자신의 호적에 올려야 한다. 미혼여성의 삶이 중요하다. 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해야 한다. 게다가 소중한 생명을 나를 위해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

가족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변한다면,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할까? 결혼이란 막중한 책임이다. 모든 갈등은

개인 혼자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

그동안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며, 무엇보다 부모님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기대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하다.

(4) 제 2.5 수준 : 선행에서 관계에 대한 진실성으로 변화

자기 자신의 회생을 통하여 타인을 보호하려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고, 자아와 타인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진행된다. 즉, 스스로의 회생과 인습에 내재된 보살핌 사이에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된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만, 자신의 관점을 충족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속 장소로 가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끼익~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차가 충돌하여 운전자가 많이 다친 것 같았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운전자가 의식은 남아있어 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대충 지혈만 해주고 119에 신고한 후, 약속 장소로 향했다. 중요한 약속이라 늦으면 안돼 오랫동안 도와줄 수 없었다. 어차피 응급처치법도 잘 모르는데 도움도 안될 것 같았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낙태와 같이 다른 방안들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처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여성은 아이를 유산하고, 유부남과 결별해야 한다. 미혼여성으로 인해 단란한 가정이 파탄나게 할 수는 없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오히려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해 질 수 있다. 게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미혼모가 된 미혼여성 자신도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어 더욱 불행해지기 쉽상이다. 지금 당장이야 미련이 남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

결혼 유지를 위해 노력하나 진전이 없다면 행복을 위하여 배우자를 떠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재는 아내인 민희와 대화를 시도해보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과감히 이혼을 하고 회수를 만나겠다. 지금의 관계는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이므로 서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각하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고려하여 잠시동안만 모셔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선은 부모님을 모셔 보도록 한다. 살아봐서 안되겠다 싶으면,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두 분이 사실 수 있도록 한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회생할 수 없다고 본다.

(5) 제 3 수준 :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보살핌의 단계

사회적 인습에 제한받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 책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관계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며,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에 균형을 이룬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¹⁾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원칙에 따라서 해결한다. 의사 결정이나 판단의 기준이 보살핌의 윤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과 임신 중절,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에서 제 3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 이를 제시할 수 없었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단순히 낙태를 원한다거나(제 1 수준), 임신한 여성이나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제 2 수준) 생각하기보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나 부모님, 가족 등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

자기 중심적 사랑(제 1 수준)이나 가족에 대한 희생(제 2 수준)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감정과 태도를 고려한다. 내면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며, 관련된 사람 모두를 역동성있게 고려한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²⁾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거나(제 1 수준) 무조건 부양해야 한다고(제 2 수준)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모두에게 최선인지를 고려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은 시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가족 회의를 자주 열어 서로간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이를 통해 의견차나 성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상의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정의 지향의 도덕성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각 단계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후인습적 수준인 제 5A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습적 단계인 제 3 단계와 제 4 단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점수의 평균은 41.67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P(%)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Rest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P(%)점수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P(%)점수 집단에 따른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P(%)점수는 42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7점 이하인 집단, 28~41점인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27점 이하인 집단이 2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42점 이상인 집단(18.2%), 28~41점인 집단(9.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42점 이상인 집단이 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은 각 갈등상황마다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도덕 수준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비록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에서는 제 3 수준에 해당하지만, 다른 상황들에서는 이에 못미쳐서 제 3 수준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표 3> 정의 지향의 도덕성 단계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정의 지향의 도덕성 수준	남		여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인습적 수준						
제 2 단계	1.27	2.85	2.90	4.37	2.12	3.79
인습적 수준						
제 3 단계	25.71	17.11	20.72	11.72	23.11	14.67
제 4 단계	26.35	13.53	16.23	10.15	21.06	12.86
후인습적 수준						
제 5A 단계	24.29	16.40	30.58	15.70	27.58	16.26
제 5B 단계	4.60	5.26	5.36	4.63	5.00	4.93
제 6 단계	5.56	4.81	12.32	8.04	9.09	7.47
P(%)점수	34.44	17.39	48.26	17.24	41.67	18.54

〈표 4〉 정의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빈도

P(%)점수 집단	성 별		전 체
	남	여	
42점 이상(上)	16(18.2)	28(31.8)	44(50.0)
28~41점(中)	8(9.1)	8(9.1)	16(18.2)
27점 이하(下)	18(20.5)	10(11.4)	28(31.8)
전 체	42(47.7)	46(52.3)	88(100.0)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 다음은 27점 이하인 집단(11.4%), 28~41점인 집단(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점수의 집단에 분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30대 성인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³⁾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여성적 정체감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양성적 정체감, 미분화 정체감, 남성적 정체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에 따른 주효과($F=11.60, p<.001$)는 유의하였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는 갈등상황마다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도덕 수준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표 5〉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88)

	남		여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6.00	.01	7.91	1.65	7.42	1.65
남성적 정체감	7.20	1.03	7.20	1.10	7.20	1.01
여성적 정체감	7.56	.88	8.00	1.33	7.79	1.13
미분화 정체감	6.93	1.03	8.00	1.51	7.30	1.29
전 체	6.95	1.01	7.87	1.48	7.43	1.35

〈표 6〉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별	18.47	1	18.47	11.60***
성역할 정체감	3.98	3	1.33	.83
성별×성역할 정체감	9.77	3	3.26	2.04
오차	127.38	80	1.59	
전체	159.59	87		

*** $p<.001$

3. 우리나라 30대 성인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과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성별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높았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살펴보면, 양성적 정체감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분화 정체감, 여성적 정체감, 남성적 정체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F=9.36, p<.01$)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Gilligan의 이론을 근거로 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Kohlberg의 이론을 근거로 한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30대 성인의 도덕성 발달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성별이나 성역할 정체감에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단계는 제 2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 1.5 수준, 제 2.5 수준, 제 1 수준 순이었으며, 제 3 수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연구한 국내 연구(곽경화와 정옥분, 2000)와 일치하였으나 국외 연구(Söchting, Skoe, & Marcia, 1994)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Söchting과 Skoe, Marcia(1994)의 연구에서는 제 1.5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제 2.5 수준, 제 2 수준, 제 1 수준, 제 3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Söchting과 Skoe, Marcia(1994)의 결과보다 제 2 수준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88)

	남		여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31.67	11.41	50.29	19.69	45.48	19.58
남성적 정체감	37.33	22.49	38.00	14.06	37.56	19.54
여성적 정체감	32.96	8.41	43.33	10.66	38.42	10.79
미분화 정체감	34.89	20.93	55.00	16.04	41.88	21.36
전체	34.44	17.34	48.26	17.24	41.67	18.53

<표 8>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별	2843.24	1	2843.24	9.36**
성역할 정체감	623.35	3	207.78	.68
성별 x 성역할 정체감	976.43	3	325.48	1.07
오차	24302.76	80	303.78	
전체	29888.89	87		

**p<.01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서구적 가치관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중에서도 제 2 수준이 많은 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 1.5 수준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의 안녕을 배려하고, 인간을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책임이나 상호성을 강조한다. 한편,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아 실현과 자유가 우선이며, 자율성과 독립·신뢰를 강조한다(유가호, 1995). 즉, 개인을 독립된 존재로 분리하기보다 서로간의 유대의식을 바탕으로 돈독한 정을 쌓아가는 가치관을 강조하는 우리로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살핌의 윤리라는 속성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문은희, 1995).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후인습적 수준인 제 5A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습적 단계인 제 3 단계와 제 4 단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P(%)점수의 평균은 41.67점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도덕성 발달수준을 측정한 윤지영(2000)의 결과에서도 30세 이상의 성인들의 P(%)점수의 평균이 40.56점으로 나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McNeel(1994)의 연구에서도 P(%)점수가 35.8~45.81점으로 나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습적 수준인 제 3 단계와 제 4 단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후인습적 수준인 제 5A 단계, 제 5B 단계, 제 6 단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M=7.87$)이 남성($M=6.95$)보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도덕적 지향성이나 도덕적 판단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몇몇 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Lyons, 1983; 광경화와 정옥분,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성역할 정체감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illigan과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서구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개인주의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라도 이러한 기대에 따라 행동하려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피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상화해야 하는 것이 남성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이나, 여성들은 다른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여성이 남성과 다른 행동 특성을 갖게 된 이유는 여성은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얽히고 설켜 관계의 소중함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이다(문은희, 1995).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으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자녀 양육에 관한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나, 아버지는 가족의 부양 책임자로서, 자녀 양육의 일부분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전통적 가정교육 원리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사랑을 해야 하지만 자녀들이 잘못하면 엄하게 다스리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칭찬하고 잘못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자비로운 사랑을 해야한다(정옥분 등, 1997).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 및 양육행동 원리가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있어 성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hlberg의 이론을 근거로 하는 DIT에 성차가 없다고 한 Rest(1979)의 결과와 상반된다. 반면, 성역할 정체감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성적 정체감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분화 정체감, 여성적 정체감, 남성적 정체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 집단에 따른 정의 지향

의 도덕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30대 성인은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은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은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 모두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386세대로 평가되는 독특한 특징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높지만,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가 증대되면서 자율성과 정의, 평등, 인간 존중과 같은 서구적 가치관을 교육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이를 통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서로 상반되는 도덕성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도덕성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높다고해서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높다고해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정의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를 통합하고,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박병춘, 1999).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 모두 성별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이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및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유의한 차이가 없는지에 관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하여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측정도구는 Skoe(1987)가 개발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를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하였으나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하여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Rest의 「주제정의검사(Defining Issues Test)」를 사용하여 후인습적 수준을 의미하는 P(%)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DIT는 도덕적 추론보다는 인지적인 판단에 중점을 두는 척도이므로 정의 지향의 도덕성으로 보는 데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주제정의 검사는 연구대상자마다 하나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와 비교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주관이 개입되어 해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곽경화, 정옥분(2000).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이동학회지*, 21(2), 213~232.
- 김보들맘(1993). 도덕적 규칙 위반과 인습적 규칙 위반에 대한 아동의 개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1996). 부모의 성격 특성과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희(1995). 여성의 도덕적 사유와 판단 : 남성의 도덕성 저 편에서. *현상과 인식*, 19, 25~48.
- 박병춘(1995).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적 성숙의 근거 연구: 길리간의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춘(1999). 보살핌 윤리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가호(1995).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과 비교문화적 고찰과 방향 모색.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63~88.
- 윤지영(2000). 비서직 종사자의 도덕성 발달수준과 직업윤리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현(1997). 배려의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도덕 판단 지향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 위논문.
- 이동원(1992).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 지역사회의 윤리적 환경. 제3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제3분과 가정과 지역사회 윤리적 기능, 216~225.
- 전창동(1996). 농촌 국민학교 학생의 도덕적 판단력과 정직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조남욱, 이동희, 안재순, 송석준, 박홍식, 이기동, 권정안, 이상은, 최영진, 오석원, 최일범, 천인석, 양재열, 이문주(1999).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아세아문화사.
- Ford, M. R., & Lowery, C. R. (1986). Gende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 A comparison of the use of justice and care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77~783.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 (1988). Two moral orientations: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3), 223~237.
-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김민남 역(1988). 도덕발달의 심리학: 도덕단계의 본질과 타당성. 서울: 교육과학사.
- Lyons, N. P. (1983). Two perspectives : On self, relationships,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53(2), 125~145.
- McNeel, S. (1994). College teaching and student moral development. In J. Rest & D. Narvaez(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pp. 27~50). Hillsdale, NJ : Erlbaum.
- Rest, J. R. (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koe, E. E. (1987). The development and partial validation of a care-based measure of moral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Skoe, E. E., & Gooden, A. (1993). Ethic of care and real-life moral dilemma content in male and female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2), 154~167.
- Skoe, E. E., & Marcia, J. E. (1991). A measure of care-based morality and its relation to ego identity. *Merrill-Palmer Quarterly*, 37(2), 289~304.
- Söchting, I., Skoe, E. E., & Marcia, J. E. (1994). Care-oriented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 A question of gender or sex role orientation. *Sex Roles*, 31, 131~147.
- Walker, L. J. (1984).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5, 677~691.
- Walker, L. J. (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0, 157~166.